

자료제공 : 2022. 12. 21.(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2133-8150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2133-8152
담 당 자	양재신	2133-8160
	손창수	2133-8155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서울시 전역 오전 10시 30분 대설주의보 해제

- 서울시 대설주의보 해제, 21일(수) 적설량 3.5cm
- 인력 9,522명, 장비 1,298대 동원, 제설제 3,980톤 투입 제설총력 대응
- 보도, 이면도로 등 제설취약 지역 제설작업 계속, 오늘밤 기온 영하권으로 결빙주의 당부

- 서울시 전역에 발령되었던 대설주의보는 강설이 종료됨에 따라 오전 10시 30분에 해제되었으며, 이번 강설로 인해 서울에 3.5cm의 눈이 내렸다.
- 서울시는 이번 제설 2단계 비상체제 가동으로 인력 9,522명, 장비 1,298대를 동원, 제설제 3,980톤을 투입하였으며, 대설주의보는 해제 되었으나 저녁에 기온이 영하권임에 따라 결빙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도의 잔설제거 작업 및 보도,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제설로 인한 교통 통제구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퇴근시간 혼잡을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 운행한다.
 - 퇴근 집중배차시간 : (평소) 18시~20시 (연장) 18시~20시 30분

-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강설은 종료되었으나 아직 보도나 이면 도로에는 눈이 남아 있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밤 영하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빙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고, 다만, 시민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근길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며, 미끄러짐 낙상 등에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